

함평군, 글로벌 브랜드 'K-HC푸드'로 해외 판로 개척 속도

김·홍도라지진액·샤인머스켓 등 해외 바이어 눈길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함평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 K-HC 푸드(Korean Hapyeong County Food)를 앞세운 해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SIAL Interfood 2025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함평군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해 현지 소비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SIAL Interfood'는 매년 자카르타 국제 전시장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문 박람회로, 매년 전 세계 40여 개국, 1,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식품·음료·농산물·원료 등 다양한 제품과 가공·포장·유통 등 산업 기술도 선보여 아

세한 시장의 소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함평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김, 홍도라지진액, 도라지배즙 등 함평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바이어들은 함평 농특산물이 지닌 풍부한 맛과 향, 균일한 품질 관리뿐 아니라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과 상품 모양까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군은 샤인머스켓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과일 시장 조사와 유통망 분석도 병행해 향후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해외 박람회를 통해 함평 농특산물의 경쟁력과 K-HC 푸드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HC 푸드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함평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나주시, '2025 사회적경제 한마당' 성황

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한 연대와 상생의 장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빗가람동 호수공원에서 '2025 나주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상생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가 주최 및 주관하고 나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가 후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열렸다.

'SE롭게 함께 만드는 가치'를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민 중심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는 남평리마을부녀회와 한결 후 해금 연주자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이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활동을 직접 접하며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경제체험존, 랜덤플레이댄스, 사회적경제 4행시 짓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전KDN이 운영한 '안전체험부스'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 사람, 경제보다 상생을 우선해 공동체를 강화하는 나주의 중요한 가치”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흥군은 이달 초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김종근 남포만이불커텐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용산농협(조합장 박철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상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주관한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매년 일상 속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 숨은 유공자 및 기

장흥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서 수상 성과 풍성

김종근 남포만이불커텐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관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있다.

김종근 대표는 18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지원, 장흥군 제 1호 부부아니소사이터티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보훈 대상자 및 탈북민 지원, 재난 피해 지역민 돕기, 지역 내 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수여하였다.

용산농협은 2023년 남성 청년으로 구성된 '해아림 봉사대'를 발족하여 지역민의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형광등, 수도꼭지, 콘센트 교체 등)을 접수 후 점검·수리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 봉사 조직인 아름답리봉사대, 농가주부모임, 부녀회와 사랑의 밑반찬, 열무김치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와 위

약계층을 위한 봉사를 통해 나눔 사랑 실천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수여하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확산시켜 주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며 “이웃사랑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분들이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와 소속감을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광양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관내 1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일제히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다.

이번 모집은 지난 6월 제정된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첫 전면적 주민 참여 절

광양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광양형 풀뿌리 자치 본격 추진

차로, 생활권 단위의 자치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는 출발점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주소 둔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모집 내용과 일정은 각 읍·면·동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참여 중심의 자치 플랫폼”이라며 “지역 발전에 뜻을 가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협의기

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과 관심사를 가진 시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문제 해결력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원 구성을 위해 마무리한 뒤 기반 정비와 지원을 체계화해 '광양형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담양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 경연을 펼쳤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5일 '제4회 담양군 청소년 사회참여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이 주관했으며,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진

담양 청소년들, 지역 문제 해법 제안

제4회 청소년 사회참여 아이디어 발표대회 성료

행했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총 21개 팀 중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심사 결과 담양정책우수상(담양군수상)에는 창평고등학교의 'एको 서베이어를 통

한 담양군 지속가능 환경정책 활성화'와 '작은 센서로 큰 재난을 막자' 제안이 선정됐다.

담양정책행복상(담양교육장상)에는 '담양군 청소년 웰빙·참여 통합 지원 정책'과 '담양형 스쿨존, 미래의 꿈나무를 지켜요'가 선정됐으며, 담양정책발전상(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상)은 '관광도시의 역할: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속가능 전략 관광패스'와 'ESG 실천과 잔반 감소를 위한 무지개 식판 도입'이 수상했다.

정철원 군수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줘서 고맙다”며 “제안된 정책은 적극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암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3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전체 업체 점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2025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의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숲가꾸기 산림사업장, 산지전용 및 벌채 허가지를 포함해 화목 농가, 목재생산·조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전체 업체에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목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여부 ▲생산·유통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 및 영수증 원목 출처 확인 등이다.

나아가 적치된 화목 등은 소나무재선

충 매개충 침입·탈출 흔적도 육안으로 확인한다. 영암군은 산림사업장과 인허가 처분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하나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동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